

6/5/16

설교 제목: 여호와와 나의 깃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출애굽기 17:8-16

- (출 17: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딴에서 싸우니라
-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 (출 17: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 치른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구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길래 또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큰 잘못을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토록 진노하시는 걸까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 아들,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입니다.

후에 형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동생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건설한 에돔 왕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일찍이 왕권 체제를 도입하였고 전술과 병력에 있어서 호전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멜렉 족속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특별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형제들끼리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간인 아멜렉이 이제 막 에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약하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습격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신 25:17)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 25:18)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찢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25: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는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 일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니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친히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시고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고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이스라엘이 가야할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주변 종족들과 모의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멸하려 하였습니다.

(시 83:2)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시 83:3)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시 83:4)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시 83:5)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시 83:6)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시 83:7)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시 83:8) 앓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문제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단순히 물질을 약탈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단순히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이 본문 바로 앞 장과 앞 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 주신 직후라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후일 주변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멸하려 할 때도 아멜렉이 앞장을 섰던 사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말렉을 포함한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따지고 올라가면 야곱이 먼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멜렉의 증오나 도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는 오로지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오히려 더 부도덕해 보이는 야곱을 택하셨듯이 아무 공로없는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죄인인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번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의 왕위를 폐하시겠다고 하신 사건에 대해 말씀 나누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치고 사람과 가축 모두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 왕 아각과 그의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 놓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사울 왕은 뻔뻔스럽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위해서 남기었노라고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럴싸한 변명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로 인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리고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왜 그토록 진노하셨는지 그 근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멜렉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인 아말렉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멜렉 왕 아각을 선대하여 하나님의 아멜렉에 대한 심판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치른 전쟁의 본말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멜렉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게 되었고 따라서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전쟁을 치루는 방법을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수장이고 이스라엘은 아멜렉의 공격을 받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당연히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모세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에는 자신의 수종드는자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신은 생똥맞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에 좌우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 오지 않도록 같이 간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부축해 주었습니다.

결국 해가지기까지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참고로 아론은 모세의 형, 훌은 갈렙의 아들이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의미이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은 전쟁에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칼과 검을 휘둘러 이겼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여호수아의 칼과 검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 훌 세 지도자의 기도였습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지도자가 힘을 합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사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며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십니다.

그 만큼 중요한 교훈이 이 전쟁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을 향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진멸시키겠다고, 다시말해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여 그 자리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을 여호와 닛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여호와 닛시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깃발처럼 십자가에 높이 세워져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아말렉들을 진멸하시고 영적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닮시, 우리의 깃발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영적 전쟁은 주님이 다 이겨 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작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렇지라도 한번도 실패하거나 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자존감을 잃고 살아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의롭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 길을 가는 제게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친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자 그것을 비난하고 모세에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주는 대신 모세에게 반발한 미리암으로 하여금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함으로써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중간에 발목을 잡고 늘어져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로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말렉과 싸움이 계속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종국에는 아말렉을 진멸하여 이름도 남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을 기억하시죠?

이 하만이 바로 사울이 살려 주었던 아멜렉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음모를 짜서 이스라엘의 씨가 마르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도리어 하만과 그의 열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만의 씨가 멸하여진 동시에 아멜렉의 씨가 멸하여 진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여러분도 세상 사는 동안 아말렉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을 외치며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